



## 미 증시, 9월 고용, 영국발 금융 불안 등으로 약세 지속

### 미국 증시 리뷰

국내 연휴기간 미국 증시는 9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발 불확실성 재확산, 러-우 간 확산 가능성 고조, 영란은행의 추가 시장 개입에도 상승한 영국발 금융 불안 지속 등으로 연이은 약세 압력을 맞으면서 하락 마감(다우 -2.42%, S&P500 -3.53%, 나스닥 -4.8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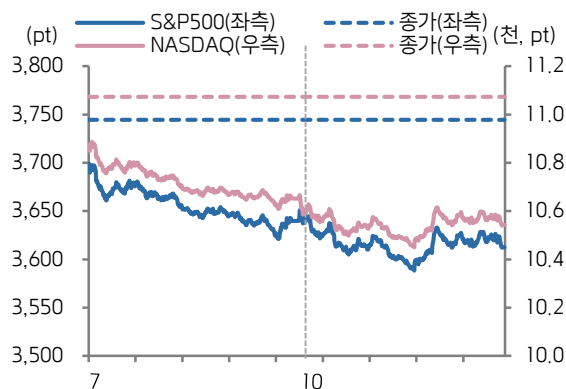
7일(금) 미국증시는 9월 비농업 신규고용자수 및 실업률 예상치 상회,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축소 및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 확대되며 급락 (다우 -2.1%, S&P500 -2.8%, 나스닥 -3.8%). 10일(월) 미국 증시는 국채시장이 휴장한 가운데, 고용지표 여파,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소식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부각, 미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발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하락(다우 -0.32%, S&P500 -0.75%, 나스닥 -1.04%, 러셀 2000 -0.6%).

미국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자수는 26.3만명(예상치 25.5만명, 전월치 31.5만명) 증가 기록하며 전월대비 하락했으나 컨센서스 상회. 그러나 실업률이 3.5%(예상치 3.7%, 전월치 3.5%)로 하락,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월 62.4%에서 62.3%로 하락한 것에 기인. 시간당임금은 전년대비 5.0%(예상치 5.0%, 전월치 5.2%) 증가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둔화. 한편 유럽 10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는 -38.3(예상치 -34.7, 전월치 -31.8)로 전월대비 큰폭 하락. 향후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전월 -37.0에서 -41.0,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가 전월 -26.5에서 -35.5로 하락.

10일 찰스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“연준이 내년초까지 금리를 인상한 후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”고 언급.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“통화정책은 한동안 제약적일 것이고, 그에 따라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”라고 언급하며 긴축 기조 유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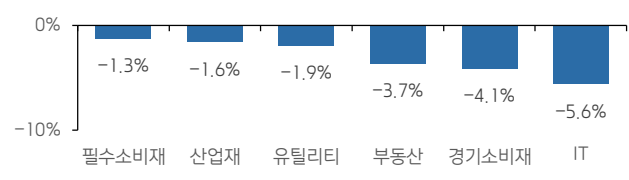
미 정부는 미국내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수출 금지, 주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전면 중단 등을 발표.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(-3.36%), 마이크론(-2.89%), 킬컴(-5.22%) 등 반도체 업종이 동반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.45% 하락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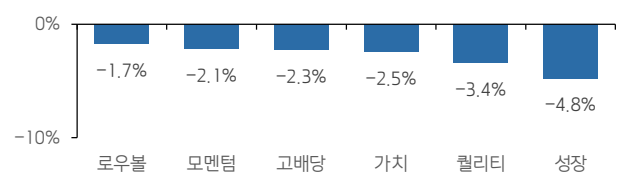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| 주식시장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외환시장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지수              | 가격        | 변화     | 지수            | 가격       | 변화      |
| S&P500          | 3,612.39  | -3.53% | USD/KRW       | 1,426.84 | +1.71%  |
| NASDAQ          | 10,542.10 | -4.8%  | 달러 지수         | 113.16   | +0.8%   |
| 다우              | 29,202.88 | -2.42% | EUR/USD       | .97      | -0.41%  |
| VIX             | 32.45     | +6.32% | USD/CNH       | 7.15     | +0.3%   |
| 러셀 2000         | 1,691.92  | -3.46% | USD/JPY       | 145.72   | +0.32%  |
| 필라. 반도체         | 2,275.34  | -9.31% | <b>채권시장</b>   |          |         |
| 다우 운송           | 12,535.57 | -2.36% | 국고채 3년        | 4.278    | +10.6bp |
| <b>유럽, ETFs</b> |           |        | 국고채 10년       | 4.210    | +10.5bp |
| Eurostoxx50     | 3,356.88  | -2.23% | 미국 국채 2년      | 4.308    | +5.2bp  |
| MSCI 전세계 지수     | 557.51    | -3.29% | 미국 국채 10년     | 3.881    | +5.8bp  |
| MSCI DM 지수      | 2,395.61  | -3.34% | <b>원자재 시장</b> |          |         |
| MSCI EM 지수      | 897.74    | -1.3%  | WTI           | 91.13    | +3.03%  |
| MSCI 한국 ETF     | 48.70     | -3.01% | 금             | 1675.2   | -2.65%  |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#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</b> | MSCI 한국 지수 ETF 는 1.34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4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1.0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428.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 |
| <b>주요 체크 사항</b>         | 1.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대외 하방 압력의 국내 증시 반영 가능성<br>2.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<br>3.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증안펀드 관련 뉴스플로우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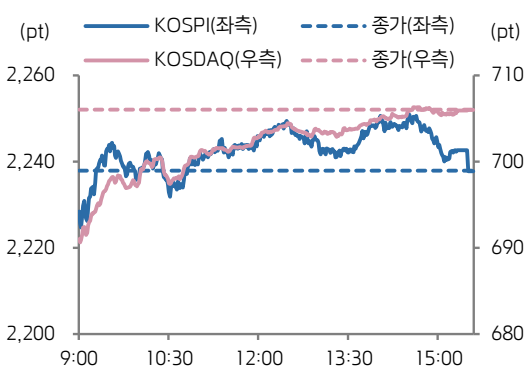
#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10 월 이후 짧은 반등의 주된 동력이었던 연준의 정책 속도 조절 기대감은 지난 7 일(금) 9 월 고용지표 결과 이후 큰 폭으로 후퇴한 모습. 9 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(26.3 만, 컨센 25.0 만)과 실업률(3.5%, 예상 3.75) 데이터 상으로 미국 고용시장은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여전히 탄탄한 상태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, 한 때 역성장 우려가 존재했던 3 분기 GDP 전망치(5 일 2.7%→7 일 2.9%) 역시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. 더 나아가 10 일 시카고 연은 총재도 '23년 정책 금리는 4.5%를 상회할 것이며 상당기간 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데이터의 견조함과 매파 발언의 조함은 11 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(CME Fedwatch 11 월 75bp 확률 73%).

1) 연준 긴축 이외에도 2) 크림반도 다리 폭파 이후 러-우간 확전 가능성 고조, 3) BOE의 추가 시장안정조치에도 급등한 영국 국채금리 사태, 4)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매크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또 다시 시장은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임. 이는 11 월 FOMC(11 월 1~2일) 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연저점 테스트를 거칠 것으로 전망. 그러나 기술적으로나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상당부분 가격에 반영해왔으며, 금주 예정된 미국의 9 월 소비자물가(13 일) 결과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. 일단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클리블랜드 연의 Inflation Nowcasting 상 9 월 예상치는 8.1~8.2%대로 지난 8 월(8.3%)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. 다만, 최근처럼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진 상태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CPI 를 기록할 경우의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과도한 주식 비중 축소는 자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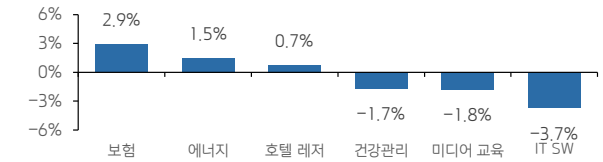
금일 한국 증시는 국내 연휴기간에 발생한 대외 하방 압력(미국 고용 호조, 러-우 사태 확전 우려 등)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 또한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사업 중인 반도체 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마이크론(-3.4%) 등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(-3.5%)가 급락했다는 점은 지난 8 일 3 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견조한 추가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.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도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많이 훼손된 상태이긴 하지만, 최근 폭락한 증시 상황에 대처하고자 증안펀드(예상 약 0.8~0.9 조원) 가동 이슈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만큼, 장중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일간 증시 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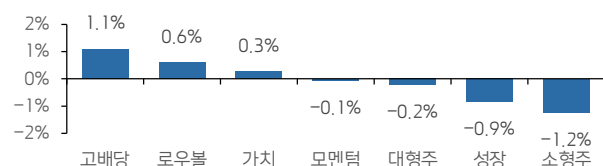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---

**Compliance Notice**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**고지사항**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---